

광주국제청 골든벨 대회 수상자 기념촬영



광주지방국제청이 최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광주청 골든벨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세법·세무지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방 국제청 제공)

서강석 호남대 부총장 '고등교육' 주제 특강



서강석 호남대 부총장은 최근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가람학회(회장 이정재) 제200회 명사초청 특강에서 '고등교육의 신 패러다임'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호남대 제공)

'피겨퀸' 김연아, 힐러에게서 답장 받아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답장을 받았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지난달 31일 전지훈런디언 캐나다 토크쇼로 돌아간 김연아가 힐러리 장관이 보낸 답장을 뒤늦게 전해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김연아가 힐러리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자필 편지의 답장을 받은 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2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의 연기를 극찬했고, 이에 김연아는 직접 편지를 보내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남뉴스)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 영산강 정화 활동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 광주지부는 최근 영산강(산동교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수중정화 사업에 참여한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 수행자들로 약 200여명이 참석, 수중정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 광주지부는 지금까지 월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월 2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해 실시해오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 ▲강신숙씨 막내 이상신군 공재웅(삼성화재 공재웅 대리점대표)·정록란씨 막내 정은영=12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삼일교회 B관 1층(소예배실)
- ▲허영철(해남부군수)·김정순씨 장남 진호군(전남개발공사) 최성근(전 농업강진군 지부)·이만심씨 막내 화영(현대자동차)양=12일(토)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웨딩홀 3층(컨벤션홀)
- ▲이삼욱(세무사)·명옥씨씨 장남 승훈군 김기군·고영란씨 장녀 지인양=12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 ▲이영순씨 차남 영호군 김인숙씨 차녀 수진양=12일(토) 오후 1시 30분 조선컨벤션 1층(연빈관)
- ▲주목균(전 광주시 건설국장)·

'저출산·고령사회' 토론회 광주 은 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

“시골에 노인·은퇴자 마을 만들어 의료 서비스 제공”

“국가 현안이 된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광주·전남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광주 감대중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토론회 주최자 광주 은 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저출산고령화는 도시, 시골 가릴 것 없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이달 말까지 심도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장·단기 보건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2011~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등에 이어 이번에 광주에서 6차 토론회를 갖는다. 김 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1차년도(2006~2010년) 기본계획을 실천해오는 과정에서 2차 기본계획도 초안은 마련된 상태”라며 “다만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애초 저출산문제는 국가가 책임해야 하나?” 토론회 주최자 광주 은 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저출산고령화는 도시, 시골 가릴 것 없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이달 말까지 심도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5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20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국가로서도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라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노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확립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치매나 중풍 등 중증 질환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령화 지속화에 따른 시골 마을 노인에 대한 나름의 복안도 제시했다. “머지않아 농어촌 마을들은 노인들만 사는 곳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면적이 널리 분포돼 있어 국가가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을 3~4개를 하나로 묶어 노인마을을 조성하거나 은퇴자마을을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도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에 큰 도움”**

김 원장은 “향후 시골지역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신체에 알맞은 주택구조 개선과 간호·간병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면은 상당히 개선되고 앞서가고 있는 만큼 이주 여성들의 결혼과 가정생활, 육아 등에 이르는 총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치과의사회 건치 노인·건치 어린이 시상

광주시치과의사회는 제65회 치아의 날을 맞아 9일 오전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가졌다.

치과의사회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구강 보건 모범학교, 모범교사, 건치 학생, 건치 모자, 건치 노인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배웅 회장은 이날 치사에서 “치아의 날 행사를 통해 치과의사와 시민이 뜻을 합쳐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치아사랑에 관한 저변 확대와 구강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광주시치과의사들의 노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광주시치과의사회는 초·중학생 구강검진,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 구강진료사업, 장애인 무료치과진료사업 등 각종 봉사사업으로 치과의사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건치노인상=▲우수상 : 김용대(광주시장장)

◇모범학교(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장 표창)=▲무학초등학교 교장 김용남

◇모범교사(광주시 교육감상)=▲광주초등학교 교장 이상희 ▲

영선초등학교 보건교사 배현정

◇치과의사 유공자 표창(광주광역시 상)= ▲이경재 원장 ▲박금석 원장 ▲박병기 원장 ▲이영희 원장 ▲정권희 원장

◇치과대학생 및 치위생과 학생 유공자 표창(광주시 치과의사회장상)=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김병인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훈구 ▲광주보건대학 치위생과 박지선 ▲서강정보대학 치위생과 김보라 ▲송원대학 치위생과 : 김진희

◇건치모자 (광주시 치과의사회장상)=▲최우수상 봉선초등학교 나유승

(어머니 박미숙) ▲우수상 여흥초등학교 김현 (어머니 류경남) ▲우수상 동림초등학교 정재현 (어머니 서명희)

◇건치학생 =▲초등 최우수상 봉선초등학교 김우리 ▲초등우수상 윤천초등학교 백민호 ▲초등 우수상 금호초등학교 이소 ▲초등모범상 도산초등학교 김민준 ▲초등 모범상 마재초등학교 장영환 ▲중등 최우수상 주월중학교 홍승기 ▲중등우수상 상무중학교 양효희 ▲중등 우수상 상무중학교 이세조 ▲중등 모범상 금당중학교 고우리 ▲중등 모범상 동산중학교 정영훈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에 김수중 교수

김수중 조선대 교수(국어국문학과)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임기 2년의 제22대 교수평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교수평의회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김수중 교수는 459표 가운데 재적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442표를 얻어 96.3%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김 수님의 임명은 “제22대 교수평의회는 사회의 반민주화 바람에 편승해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옛 경

영진의 복귀 음모를 막고 교편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겠다”며 “교수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옛 경영진의 복귀 음모를 막는 기구로써 힘찬 새 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어르신 초청 행복 효잔치 수원지구 빛과사랑교회

광주시 광산구 수원지구에 있는 빛과사랑교회(담임목사 리중기·사진)는 11일 오전10시부터 교회본당에서 수완·신가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 ‘행복 효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부 ‘마음열기’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 빛사랑 몸 찬양단 공연, 어르신 장기자랑 및 노래마당, 초청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식사와 함께

선물 증정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리중기 담임목사는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062-954-8800 /김대성기자 bigkim@

